제11강 오성의 한계와 초월적 사용

◆오성의 초월적 사용
(1교시)
※학습목표: 순수오성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살펴본 후, 오성의 정당한 사용과 초월적 사용을 비교한다.

▲순수오성의 원칙 1
「「직관의 공리」를 〔가능케 하는〕원리는 모든 직관은 외연량이라는 것이다. (중략) 「지각 예료를 〔가능하게 하는〕원리는」모든 현상에서 감각작용의 대상인 실재적인 것은 내포량 즉 도(degree)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략) 「경험의 유추」의 원리는 경험은 지각들의 필연적 결합이라는 표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순수오성의 원칙 2 : 경험의 유추부분
「실체지속에서 생기는 원리: 현상이 아무리 변역해도 실체는 지속하고 자연에서의 실체의 양은 증감이 없다.」
「인과성의 법칙에 따른 시간적 후속(계기)에서 생기는 원리: 모든 변화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에서 생긴다.」
「「상호작용 혹은 상호성의 법칙」에 따른 동시존재로 보게 하는 원리: 모든 실체는 공간에서 동시적인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한에서 일관된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관계범주에 근거해서 세 가지의 원칙(공리, 예료, 유추)이 이야기되고 있다.

▲순수오성의 원칙 3 : 양상범주 부분
「경험적 사고 일반의 요청
1.경험의 형식적 조건(직관과 개념에 관한)과 일치하는 것 〔현상〕은 가능적이다.
2.경험의 질료적 조건(감각)과 관련하는 것 〔현상〕은 현실적이다.
3.경험의 일반적(보편적) 조건에 의해서 현실적인 것과의 관련이 규정되어 있는 것 〔현상〕은 필연적이다(즉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가능성, 현실성, 필연성이 얘기된다.

▲『순수이성비판』의 골자
「제3장 모든 대상 일반을 현상체와 가상체로 구별하는 근거」
-칸트의 물자체에 대한 논의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하려는 작업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라(비트겐슈타인)"와 같다. 이는 사실 칸트의 작업을 다시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칸트가 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당한 인식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초해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만약 알 수 있다면 어떤 근거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없다면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순수이성비판』의 중요한 골자다.

www.artnstudy.com

-그러한 작업, 현상체와 가상체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원칙의 분석론 3장이다.

▲도덕과 종교의 가능성

「그런데 오성의 이런 규칙 〔원칙〕은 선천적으로 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원천 즉 우리의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규칙은 모든 인식의 개괄로서의 〔보편타당한〕 경험·객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인 것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겠다.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 〔도덕과 종교의 본질〕이 서술되어야 할 듯하다. 따라서 이 비판적 연구에 의해서 〔변증론의〕 치밀한 탐구가 없어도, 오성의 경험적인 사용에서 스스로 행하여 왔던 것 〔분석론〕 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구에서 얻는 이익은 우리가 치른 노고나 용의에 상반하지 않을까 싶다.」

-인식과 대상이 일치하다는 것은 진리 개념의 한 규정이다. 그런 일치가 가능하려면 순수오성의 원칙들과 감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분석론은 오성이 정당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오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경계를 긋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합법적 오성 외에 어떤 사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왔던 작업은 인식의 소극적인 한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르쳐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칸트가 합리적인 인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 인식을 과학에 국한시키고 그 이상에서 도덕이나 종교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참고사항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자아에 대해서 확신한다. 그를 밑바탕으로 그는 세계와 신을 유한실체(영혼, 육체)와 무한실체(신)로 구분한다. 세계는 유한실체가 됨으로써,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서 가능해지며(영혼은 예외), 반대로 신은 무한실체로서 과학의 활동과는 전혀 다른 영역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서 데카르트는 신과 과학을 모두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려는 호기심이 유해하다 하더라도, 연구에 종사하기 전에 또 앞으로 보게 될 연구의 효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전에, 연구의 효용을 미리 알려고 하는 호기심만큼 유해한 것은 없다는 답을 할 수 있다.」

-유해한 이유는 자칫하면 근거 없는 사변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기 전에 미리부터 짐작해서 유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연구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추동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미리부터 효용성을 긋고서, 해보지도 않고 미리 부정적인 짐작을 하는 것은 유해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당한 인식의 한계를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 바깥으로 나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위험에 빠지는가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론적인 이성에서 한계를 긋는 것 못지않게 실천이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의 사용

「오성이 어떤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없다

www.artnstudy.com

면, 오성은 자기의 요구와 소유를 확보할 수가 없다. 반대로 오성은 그것이 자기 분야의 한계를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마는) 부단히 넘어서서 망상과 환상에 빠지는 경우마다 몇 번이고 수치스러운 시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하기에 오성은 자기의 모든 선천적 원칙을, 아니 자기의 모든 개념을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요, 선험적 〔초험적〕 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 명제, 그것이 만일 확실하게 인식된다면, 중대한 귀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오성의 정당한 사용은 경험적 사용이다. 경험적 사용은 오성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형식적 틀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성을 통한 내용(인식질료) 채워 넣었을 때만이 정당한 사용이다.

*참고사항

transcendental선험적과 transcendent초월적은 다르다. 이 번역자는 초월적은 초험적으로 번역했다. 칸트가 (실수인지 아닌지) 초월적이라 해야 할 것을 선험적으로 해 놓았다.

▲개념의 초험적 사용

「**한 원칙에 있어서의 개념의 선험적 〔초험적〕 사용이란, 개념이 사물 일반, 즉 물자체 그것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인식대상과 인식주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감성의 차원이다. 반면 우리 오성이 이렇게 감성으로 받아드린 것을 구성한다.

-그런데 사변이성은 감성계를 건너뛰어서 물자체 세계를 알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오성의 초월적인 사용이다. 그러한 사용은 인식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용이다.

▲예지적 직관

-사변이성으로의 사유는 오성의 원칙들을 사용해서 경험된 인식질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예지적 직관intelligent intuition이라 한다. 감성된 것을 오성으로 받아드려 구성하는 것만 정당한 인식이다. 사변이성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오성 개념의 사용과 실천철학

www.artnstudy.com

(2교시)
※학습목표: 오성 적용의 한계와 실천철학의 문제를 살펴본다.

▲오성의 순수개념의 사용
「「오성의 순수개념」은 항상 경험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선험적 〔초월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순수오성의 원칙은 가능한 경험의 보편적 조건으로서 감관의 대상에만 관계할 수 있고, (우리가 사물을 직관할 수 있는 방식을 무시하며) 사물 일반에 관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순수오성의 법칙은 감관의 대상(경험)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감관을 뛰어 넘는 것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감관으로 매개 없이 사물과 접촉하는 것이 직관이다. 이 직관에 오성이 관계한다. 그러하되 이 직관 바깥의 것에는 관계할 수 없다.

*참고사항
오성의 개념과 원칙
-오성의 순수개념은 범주category다. 오성의 순수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연관 지어서 판단이나 구성을 할 때의 오성의 원칙이 있다.
-가능한 경험의 보편적 조건은 오성의 순수원칙이다. 경험들은 우리의 인과법칙(원칙)에 입각해서 인식(판단)된다. 그래서 가능한 경험의 보편적인 인식론적 조건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오성이 그러한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의 한계 1
「따라서 선험적 분석론에서 중요한 결과가 생긴다. 즉 오성이 선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가능한 경험 일반」의 형식을 예료함anticipate(기대)에 그치고, 현상이 아닌 것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성은 감성의 한계를 감성 내에서만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가능한 경험이란 이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감관과 오성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현상phainomenon. 그리스어의 phainô는 독일어의 schein과 비슷한 말이다. 나타나다. 빛 아래에 서다. 빛나다. 그래서 현상은 나타나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타났다는 것은 나타났다고 말하는 그 존재(주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무엇인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체다. 그 주체가 무엇인가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조건)는 감각(感覺)이다. 각(覺)이 anticipate와 통한다. 기대한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감에 대한 각이 달라진다.

▲오성의 한계 2
「오성의 원칙들은 현상을 해명하는 원리일 뿐이다. 존재론은 사물 일반의 선천적인 종합인식(가령 원인성의 원칙)을 체계적 이론으로서 주는 것이라고 보통 참칭하지마는, 소위 존재론이라는 과시적 명칭은 이제야 「순수오성의 한갓 분석론」이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대신해야 하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흄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과관계들이 실제 이 세계에 객관적으로 주어졌다고 보았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존재론ontology이다.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인과관계와 같은 것들은 실제 이 세계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나타난 현상들을 적용할 수 있는 틀이다. 그래서 존재론은 너무 과장된 말이고 순수오성의 한갓 분석론이란 겸손한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철학자들이 '있다'고 한 것은 칸트에게 '가지고 있다'로 되며 그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인식론적 전회(轉回)).
-철학의 개념도 바뀐다. 전통적 의미에서 철학은 형이상학metaphysica(ontology)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험세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칸트의 사고에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형이학physica(경험적 지식)이고, 철학이 하는 것은 그 형이학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 조건을 밝히는 것epistemology이다. 즉 선험철학이 된다.

▲선험철학 이후 (실천철학)
-칸트에게 선험철학이 모두가 아니다. 칸트에게는 형이상학이 모두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을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도덕과 종교다.
 전통철학이 물리학을 넘어서 형이상학을 알려고 한다. 반면 칸트는 두 가지다. 형이상학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밝히는 epistemology(이론 철학), 그리고 가치의 영역을 실천철학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판단력과 사변이성

www.artnstudy.com

(3교시)
※학습목표: 선험적 사유에서의 판단력의 의미와 사변이성과의 관계를 살핀다.

▲판단력의 필요
「무릇 개념 〔범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 외에 대상을 개념 아래로 포섭하는 판단력의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무엇이 직관에서 주어질 수 있기 위한 적어도 형식적 조건이 필요하다.」
-판단력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틀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판단력은 직관과 오성의 범주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다.
-직관이 주어지고 오성이 그 직관을 가지고 구성(종합)한다. 그런데 그 오성이 경험자료(직관)에 적용되어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자료들을 관계 맺게 해주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판단력의 조건(도식)이다. 그것이 있어야 판단력이 작동할 수 있다.
-감성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리고 오성이 사물들을 구성하는 조건은 범주(원칙)이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 감성(감각)과 오성(사유)을 연결해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즉 이것이 판단력이다.
-감성의 선험적 조건은 시간과 공간. 오성의 선험적 조건은 범주들과 원칙들. 판단력의 조건은 도식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말하면 감성, 오성, 판단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작동하게 만드는 선험적 조건은 시공간, 범주와 원칙, 도식이다.

*참고사항
인식의 최소 조건: 인식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각능력(직관능력). 사유능력(오성). 판단력이다.

▲도식의 필요
「판단력이 이러한 조건(즉 도식)이 없으면 저 포섭은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고 보면 범주의 선험적(초월적) 사용이란 실은 사용이 없는 것이요, 규정된 대상을 가지지 않으며, 형식상으로나마 규정될 수 있는 대상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판단력의 조건은 도식이고, 그 도식이 작동함으로써 개별자가 보편자에게 포섭이 되고, 보편자가 개별자에 적용이 된다.

▲선험적 사유와 판단력
「그렇기에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겠다. : 즉 「감성의 형식적 조건이 없는 순수범주(직관 없는 사유)는, 순 선험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되, 선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선험적 사용 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이는 순수범주에는 그것이 (판단에서) 어떻게든지 사용되는 조건이 없는 데에 있고 다시 말하면 개념 아래로 이른바 대상을 포섭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이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범주는 (한갓 순수범주로서는) 경험적으로 사용될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선험적(초월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범주가 감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면, 범주는 도무지 사용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순수〕 범주는 이른바 대상에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범주는 대상일반과 사고에 관한 오성사용의 순 형식임에 불과하고, 이런 순수범주만으로는 그 어떠한 객관을 사고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다.」

www.artnstudy.com

-선험적 사유란 것은 오성자체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감성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성이 없는 오성은 휑한 틀일뿐이다. 오성이 오성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과 부딪쳐야 한다.
-판단력의 도식이 작동하여 개념의 아래로 어떤 대상들을 포섭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없으면 오성은 하나의 공허한 틀일뿐이다.

▲직관이 제거된 오성
「그럼에도 피하기 어려운 착각이 〔이상의 논의의〕 근저에 있다. 범주는 그것의 기원상으로는 직관형식 시공처럼 감성에 기본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감관의 모든 대상을 넘어서서 확대된 사용이 허용되는 성싶다. 그러나 범주 자신은 한갓 사고형식이요, 이 사고형식은 직관에서 주어진 다양을 선천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의식 중에로 들어가는 순 논리적 능력을 갖는 것이다. 범주로부터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감성적〕 직관을 제거한다면, 범주는 순 감성적 형식보다도 더 의의가 없다. 왜냐하면 순 감성적 형식에 의해서는 적어도 객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오성이 고유한 능력인 (다양한 것의) 결합방식은, 다양한 것이 그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직관이 오성에 보태지지 않으면, 오성은 전혀 의의가 없는 것이다.」
-감각이 뒷받침하지 않는 범주는 범주가 뒷받침하지 않는 직관보다 더 못하다. 차라리 하나만 있으면 감각이 낫다는 소리다. 왜냐면 범주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무엇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상체와 가상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개념 〔사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원래 들어있다. 즉 현상으로서의 어떤 대상을 우리가 그것을 직관하는 방식을 그것의 성질자체 〔물자체〕 에서 구별하여, 우리가 감각적 존재 〔현상체〕 라고 말한다면 대상을 「성질자체」 대로 직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타방 같은 대상을 그 「성질자체」 에 따라서 <u>오성적 존재(가상체)</u>라고 말하거나 속은 우리 감관의 대상이 되지 않은 딴 가능적 사물을 오성에 의해서 생각하게 된 대상으로서, 감각적 존재에 이를테면 대립시켜서, 오성적 존재(가상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가상체에 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냐, 즉 가상체의 인식 방식일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오성적 존재란 오성이 감각경험을 뛰어넘어서 감각한 대상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오성이 사변적으로 설정한 존재다. 전통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의 존재들(사변이성적 존재)이다.
-현상적(경험적)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의 본질 자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체의 방식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지성적 직관
「지성적 직관intelligent intuition」
-우리 사변이성이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 대상의 본질을 알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